

한국여성재단 창립9주년 행사에서

2008-12-5

이 자리에 서서 보니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한 9년간의 세월이 저에게는 길기도, 그리고 짧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9년간이란 어떤 조직이건 간에 피해야만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들기에 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려고 했던 일들을 얼마나 성취해 냈는가 하는 점에서 살펴보면 분명 시간은 짧았습니다. 나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미루어 능력부족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금목표는 10분의 1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파트너단체들의 버팀목 역할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도 만족할 수 없으며 기부문화에서 성차별도 확실하게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나 제정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평등사회의 주축으로서의 여성대중을 튼튼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뜻대로 이루어놓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절실히 필요하게 된 시민사회공익재단들의 연대도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여성재단이 약자 편에 서는 사회적 서비스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된 것은 다행입니다. 주변화 되어있는 여성들이 주류화를 향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 기부문화에서 결집된 목소리로 인구의 반인 여성의 몫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워냈다는 것, 십시일반의 풀뿌리기부자들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팀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재단을 파트너로 선정하기에 이른 것. 1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성재단은 이제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후퇴 없는 전진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한 이끌어내야만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여성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이희호여사님을 비롯한 창립회원들,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후원자들, 이사님, 위원님, 홍보대사님들을 필두로 하는 재능기부자들과 발란티어들, 성평등사회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파트너단체들,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100세 인생을 제1, 제2, 제3의 인생으로 구분해서 살라고 하고 있지요. 여성재단과 함께 한 9년간의 세월은 저의 보람을 찾아 산 제2의 인생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따뜻함과 인내심으로 보살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입니다.

어느 순서 하나 뺄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는 창립기념행사에 쓰기도 모자라는 시간을 이렇게 특별코너를 마련해서 또 다른 삶에 대한 꿈을 찾아나서는 저를 격려하여 주심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비상의 출발을 기약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재단의 창립9주년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빕니다. 평소에 쉽게 쓰지 못하는 말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